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3월)

일시	2019. 3. 28. 목. 오후 5시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윤택림, 여성구, 조경선, 최양호, 형지영(총 5명) -서면 의견제시 및 위임 조숙경, 최선희(2명)	
	회사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보도국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회의 내용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3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14명 위원 가운데 5명이 참석하시고, 2명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위임하셨다. 윤택림 위원장께서 진행해주시겠다.
- 윤택림 위원장 : -날씨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운을 느낄 정도로 따뜻해졌다. 얼굴 붉고 만나 반갑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좋은 토론 많이 해주시길 기대한다.
- 송일준 사장 :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봄이 왔다. 그런데 MBC 네트워크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시청자들이 과거처럼 사랑해주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도 최근 들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빛어지고 있다. 광주MBC만 해도 <핑크피쉬>가 계속해서 상을 받고 있고, 5.18 다큐멘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대상 본선에 진출해 있다. 시청자 투표를 10%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어떤 상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위원님들도 가능하시면 응원하는 차원에서 투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열심히 합시다만 늘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광주MBC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 윤택림 위원장 : -주요 업무보고를 해달라.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한국전파진흥협회 콘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신청해서 <문화콘서트 난장>과 <핑크피쉬>, <포구만리> 세 편이 제작지원에 선정됐다. 3월 18일 봄 개편에서는 <오매 전라도>가 월~목요일까지 론칭을 했다. 월요일만 공동방송을 시작했는데 평이 좋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월요일만 방송한다. <뉴스데스크>가 7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본사 <별이 빛나는 밤에>가 광주에서 생방송을 했다.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이 내일 녹화예정이고 <테마기행 길>을 제작하고 있다. 4월에는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 시립발레단, <난장> <우리가락 우리문화>가 녹화 예정돼 있다.
- 한신구 보도국장 : -<뉴스데스크>가 3월 18일부터 85분 와이드 편성됐다. 이에 맞춰서 서울은 집중 취재를 많이 다루고 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보완하고 노력하려고 한다.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가 불법 매립되는 실태를 집중보도했다. 저희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주 매립장 관련 갈등도 이번 주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주요 이슈로 다룬다. 최근 광주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따져봤다. 전두환 광주 재판 출석, 3.1운동 백주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

이템을 보도했다. 5.18 처벌법도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적절하게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4월 주요 계획으로는 세월호 5주년이 있어서 목포, 여수와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다. 한전공대 실시협약을 준비하고 있고, 세계수영대회가 4월 1일자로 D-100일이다.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5.18민주화운동 올해 39주년, 내년이 40주년이다.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있었다. 방송카메라, 영상기자, 방송기술, 방송사업 4개 부문이다. 최종 합격자는 어제 3월 27일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부서별 사내 교육이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광주MBC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다. 3월 11일 오픈했는데 콘텐츠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했다. 지상파 프로그램 외에 유튜브나 디지털 전용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이다.
- 윤택림 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이 있다.
- 여성구 부위원장 :-뉴스는 왜 8시에서 7시 30분으로 옮겼나.
- 한신구 보도국장 :-뉴스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이해를 해달라. 타 방송사와 차별화로 먼저 뉴스 들어가서 이슈를 선도하고, 원래대로 하면 8시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한데 MBC의 특성상 편성 프로그램과의 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당길 수밖에 없었다.
- 송일준 사장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기존 짧은 뉴스보다 25분이 늘어났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뉴스를 심층적으로 와이드 하게 집중적으로 다루자는 차원에서다. 그전에는 짧다 해서 대폭 25분을 늘렸다. 뒤쪽으로 늘일 수 없어서 앞으로 늘렸다.
- 윤택림 위원장 :-뉴스 시간이 25분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 송일준 사장 :-사실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 여성구 부위원장 :-광주MBC 뉴스도 늘어났나?
- 한신구 보도국장 :-광주MBC 뉴스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14~15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 4, 5분짜리 심층적으로 하는 부분이 늘었다. 저희는 아직이다. 장기적으로 속제다.
- 여성구 부위원장 :-KBS 뉴스와 비교해보니 KBS가 7분 정도 길게 한다.
- 한신구 보도국장 :-KBS가 10분 내외로 아침 뉴스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 7시 15분에서 42분까지 27, 28분을 하게 된다.
- 여성구 부위원장 :-3월 7일 뉴스를 봤는데, 환경미화원이 밤이 아닌 낮에 일한다는 타이틀로 뉴스가 나왔다. 이 보도는 여러 번 이슈 제기를 앞에 한 것 같다. 그 결과 해결까지 끌어낸 보도여서 좋았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계속 추적해서 개선할 때까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3월 19일날 할머니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걸 보여주던데 그동안 할머니들이 늦깎이 공부하는 걸 좋게만 봤다. 그런데 과연 할머니들이 별도의 반이 있으면 모르지만 조그만 손자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과연 학생들 입장,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꼭 그 방향으로 가야되느냐 생각하게 한다. 물론 친근한 감을 주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잘했다는 보도를 한 번도 못 봤다. 객관성, 전문성 문제 등이 계속 나왔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느 기관에 대한 청문회만 얘기했는데 그동안 광주시가 지금까지 한 인사를 종합적으로 더듬어볼 필

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인사 난맥상 문제가 나오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언론에서 짚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윤택림 위원장 :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사회에서 정말 저 자리는 이런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미리 양케이트 조사해서 광주시를 위해서 이런 기관장이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면 어떨까. 기대치가 있으면 자체 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편하게 하지 않고 뭔가 생각을 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
- 최양호 위원 : -이번에 프로그램 개편해서 뉴스나 프로그램 시간대나 내용 측면에서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먼저 편성전략에서 특히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편성전략을 종종 프로그램 개편 때 바꾸는데 광주MBC 같은 경우 크로스 엿물리기 편성전략을 이번에 시도한 것 같다. 다른 방송뉴스 시간대보다 30~40분 빨리 시작해서 지역 시청자들이 광주MBC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성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편성시간도 바뀌고 해서 내용적 측면이나 뉴스 아이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나 해서 3월 21일자 뉴스데스크를 유심히 시청했는데 카운팅을 해봤더니 뉴스 아이템이 14개였다. 14개면 15분 동안 평균 시간대가 약 1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메인뉴스 아이템이 4개 정도 되고 10개가 단신 뉴스 아이템인데, 이번에 프로그램 개편 때 편성시간도 바뀌고 했으니 다른 지역방송사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14개 아이템을 15분 동안 나열하기 보다는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심층 뉴스 한두 개 정도는 포함 시켜서 보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방송뉴스를 시청할 때 신문에서도 헤드라인 1면이 중요하듯이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중요한데 뉴스 순서를 배열할 때 정확한 기준이 없이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메인뉴스 중에서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그리고 뉴스 중에서도 깊게 분석해야 할 아이템, 단신뉴스도 뒷부분에서 방송할 때 어떤 순서로 방송할 것인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형지영 위원 : -요즘 무엇보다 화두가 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건강과 직결된 최악의 미세먼지 상태가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에서 일곱 차례 걸쳐서 집중 취재를 했다. 광주형 미세먼지 특징에 대한 보도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다. 왜 우리 지역은 공장 밀집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게 문제되는 걸까. 미세먼지 특징, 주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것과 함께 그 원인에 따른 연구가 한계가 있다고 함께 진단을 했다. 광주형 미세먼지의 특징에 맞는 대책, 한계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좋았다. 기타 연관된 이런 질병들의 발병 수치가 높은 이유 및 원인에 대한 연구 등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보도 내용에도 보면 한계가 있다며 광주지역을 뒤덮은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했지만 정확히 그 성분이나 온 발원지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탓에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 보도도 적절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 하니깐 행정기관에서 학교 주변이나 차량 2부제를 했는데 과연 그 2부제가 실효성이 있고 보여주기식 2부제, 눈을 피하기 위한 것만으로 과연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나 특히 광주가 농도나 발병 수치 등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전문가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발병률, 사망률 등도 광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광주MBC가 잘 파헤쳐줬으니 한층 더 나아가 추가적인 취재나 계속 후속 보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 홍보를 통해서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대책이나 대대적이고 종합적인 관심과 지원, 연구 등을 촉구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청소업체 불법매립에 대해서 광주MBC에서 발굴해서 사회 어두운 면을 잘 취재해서 각성하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3.1절 100주년 관련해서 여러 편 집중 취재가 있었다. 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투사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좋았다. 백화마을과 김구 선생 등 소개가 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김구 선생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 교가 등에 일제 잔재 친일인사들이 작사 작곡한 교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보도도 함께 이뤄져 좋았다. 이런 보도들이 어떤 기념일만 되면 일시적으로 보도되었다가 사라지는 게 반복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돼서 보도되면 좋겠다.

- 윤택림 위원장 : -미세먼지 자세하게 얘기해줘 고맙다. 미세먼지에 대해 사실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대책을 잘 못 내놓는다.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10년 전, 20년 전과는 다르다. 중국의 많은 공장들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을 하면 미세먼지는 계속 보도를 해야 하고, 여기에 미세먼지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다른 데보다 심층적인 보도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자. 전문가들 풀도 만들고 하면 앞에서 형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속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깊숙이 보도가 된 것 같다. 거기 보면 수거업체들의 비리 고발이 있는데 카톡문자는 제보가 있었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취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를 추가하고 2차 후속타로 한다는지, 언제 보도를 했으니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을 후속 보도하면 좋겠다. 이런 보도가 됐으면 틀림없이 담당 공무원도 대책에 대해서 인터뷰 하겠구나 본인들도 각성하고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만세만세 만만객 보도가 있었다. 문화재단 지원방식을 소개하는데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 핵심은 어떤 문화단체들이 후원금을 열심히 모아서 후원금을 모은 만큼을 광주시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 지역사회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네이션 하는 문화를 만들고 참여하는 게 문화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지역사회와 지역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들었던 문화에 대한 펀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와닿는 제도였다. 다른 부분도 이런 방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조경선 위원 : -지난주 방송했던 <김낙곤의 시사본색>을 봤다. 그날 주제는 기아타이거

즈의 2019년 관전 포인트와 저가항공의 안전을 다뤘는데 준비를 많이 해서 각 사안마다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많이 연구하고 준비한 거 같다. 풍부한 질문들이 돋보였던 것 같다. 진행을 맡은 김낙곤 기자의 노련한 운영도 돋보였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담자 뒤에 모니터가 있는데, 대담자를 비출 때 모니터에 글자가 나오는데 주제를 보여주는 글자가 가려진다. 시청자가 보기에는 답답하게 보이는 것 같다. 가려질 것을 왜 뒤에 나뉘었을까. 대담자가 하는 멘트를 텍스트로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텍스트하고 뒤에 모니터 나오는 글자가 겹친다. 오버랩 되니까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느꼈다. 이런 부분 개선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다. 두 번째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 시간 동안 화면이 바뀌지 않고 진행자와 참여자 두 컷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 한 시간 동안 두 컷에서 화면이 바뀌지 않으니 집중해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해당 내용들은 뉴스에서 다뤘을 것 같은데 이야기 하는 중간중간에 해당 뉴스를 삽입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대담자가 하는 얘기들을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별도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 전환이 되면 훨씬 다채롭고 보기에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콘텐츠의 질은 좋는데 약간 형식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수준 높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의 수고로움이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 여성구 부위원장 :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한다. 한 시간 동안 내내 집중해서 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픽 활용을 한다든지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잠깐잠깐 다른 장치,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 3일 보니까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토론이 나왔다. 가능한 <김낙곤의 시사분석>은 8시 5분에 하는 걸 보려고 한다. 간판 프로그램이 되겠다. 한전에서 개성지사를 3년 동안 담당했다. 개성지사가 있었다. 출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계속 자기 PR을 한다든지 개성공단의 순기능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한다. 이런 때 사회자가 PR성 발언, 계속 좋은 점만 얘기하고 하는데 역으로 다른 배경에 대해 질문을 하면 좋겠다. 예리하게 파고드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못했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시사적인 분석을 보여주는 운영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조경선 위원 : -3월 18일 <빛날> 후속 <오매 전라도>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3월 20일자 방송을 봤더니 뉴스피드를 제외한 4개 코너 중에 3개가 포함, 대전, 대구 등 타 지역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프로그램 소개를 봤더니 <오매 전라도>는 남도 곳곳의 오지고 매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와는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방송으로는 한계가 있어 타 지역 방송에서 만든 코너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당초 기획했던 의도를 반영해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남도의 오지고 멋진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본다.
- 최양호 위원 : -3월 18일부터 개편된 <오매 전라도>는 제가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다른 지역과 교류 차원에서는 좋지만 지역밀착형 내용을 많이 구성했으면 좋겠다,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 여수,

목포와 3원 방송하는 게 참신하고 좋게 본다. 아쉬운 점은 KBC 같은 경우 코너별로 이름이 다 있다. 꼼꼼한 시선, 별별 코너, 내일 점심 뭐 먹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코너 이름을 짓는데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매 전라도>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점은 뉴스피드 경우 개인적으로 빠른 뉴스를 전달한다고 해서 뉴스 스피드인지, 뉴스를 피드(feed)한다고 한다, 그래서 news speed인지, news feed인지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다. 홈페이지에서 얼핏 봤는데 철자를 쓸 때 뉴스와 s를 대문자로 해서 뉴스와 피드를 서체를 달리 하면 시청자들에게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광주 전남지역의 정보 음식 문화를 소개하기로 편성한 것 같은데 조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 정보 보다는 광주 전남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을 때 지역민들이 훨씬 더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오매 전라도> 제목에서도 전라도 사투리가 시청자들의 친근감을 끌어낼 수 있고 한데 세세한 부분 신경 써주길 바란다.

-우리가 보통 시청자들이 얼마나 시청하는가 했을 때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방송이다 보니 정량 평가에서는 시청률 평가기관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다음 개편 때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회의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쪽은 보면 MBC 같은 경우 방송 품질지수가 개발되고, KBS 경우 공영성 지수, SBS는 수용자 만족지수 평가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MBC도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서 광주 전남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새로 개편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만족감과 충족감을 느끼는지 종합해서 측정 문항 같은 것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후 측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형지영 위원 : -홈페이지 개편이 2주 좀 넘은 것 같은데 반가웠다. 예전에 비해 정돈된 느낌이어서 보기 편했다. 저희도 홈페이지 개편해보면 상당히 큰일이다.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는 또 다른 세상이다. 사람들이 안 보는 거 같아도 많이 보게 된다. 개편 홈페이지 전체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분야마다 메뉴마다 꼭지마다 관련된 담당 프로그램이 또 하나 세상이다, 책임의식, 주인의식 가지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내 프로그램과 관련된 홈페이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회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그쪽 세상도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전 홈페이지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아 몇 년 전 자료가 그대로 있고 업데이트 되지 않은 채로 자료가 있었던 것 같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프로그램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홈페이지에 랭킹별 기사가 나온다. 어떤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상위 랭크된 10위권 뉴스들을 보고 싶는데 같은 뉴스 기사가 그날 반복되어서 나온다. 반복해서 나오는 동일한 뉴스인데 각각 카운트가 되는 것 같다. 전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한 번 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홈페이지는 관리하는 몇몇 분의 수고로는 어려운 것 같고 전체 구성원이 다 함께 보고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 여성구 부위원장 : -3.1운동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그 와중에 반민특위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 광주MBC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반민특위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랄지 다른 방송에서 하는 것 못 봤는데 먼저 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세월호 국조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CCTV가 조작이 됐다

고 한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5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 발 빠르게 다시 또 이 슈화되는데 지역방송이 터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윤택림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다면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 한신구 보도국장 : -환경미화 부분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게 기자들의 성취동기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할머니,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부분은 폐교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남교육청의 선택이다. 폐교를 하면 학생들이 먼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하기관장 인사 난맥상 보도 같은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으로 보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느 시점을 잡아서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최양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뉴스 시간이 당겨진 건 편성전략의 개념은 아니고 서울이 앞으로 당기면서 자동적으로 뉴스 시간도 3, 4분 정도 앞으로 당겨온 개념이다. 15분 동안 백화점식 나열했다고 하는데 저희의 날마다 고민이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고 싶지 않고 뉴스 자체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나 지역의 이슈가 그때그때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지역뉴스 아이템 한계일 수도 있고 저희들의 취재기자의 수적인 부분이나 조금 역량이 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뉴스로 가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뉴스 순서가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는지 질문을 했다. 데스크와 취재부장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뉴스를 전달하느냐이다. 그 전달하는 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는 저희들의 고민이자 풀어야 할 숙제다. 저와 취재부장, 앵커가 같이 오후 4시 이후에 오늘의 밥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청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이다. 그때그때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날 그 날 따라서 오늘은 이 아이템이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이다. 그 날 그 날에 따라서 목포MBC가 만든 콘텐츠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월호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민들 다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숙제로 각인하고 있겠다. 형 위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는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도했는데 심층적인 취재는 현실적으로 미세먼지가 뉴스에 등장하게 10년이 되지 않는다. 그 전에는 주로 황사였다.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이쪽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든가 하는 게 거의 없다. 마지막에 그 부분이 고심이 됐고, 상투적으로 끝나는 걸 싫어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잘된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 전문가들도 신뢰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행정기관하고 점검하고 유기적 관계를 갖고 제일 먼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많은 관심 고맙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돼서 오늘부터는 뒤 자막은 없애고 깔끔하게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간에 필요한 것은 자막으로 보완하기로 정리를 했다. 이번 주부터는 뒷배경의 주제가 가려지는 부분들은 이번 주부터는 없을 것이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이 4월부터는 전국 MBC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방송될 예정이다. 재방송으로도 편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구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 등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한 패널의 일방적 주장이 되지 않도록 사회자에게 고민하도록 하겠다.

- 광판주 편성제작국장 : -<오매 전라도>를 론칭 했는데 성공적 출발을 했다. 기본적으로 전라도 소식을 많이 채우려 하는데 가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중 있게 올라온 소식들이 있어 하고 있다. 가급적 우리 지역 소식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다. 코너 이름 같은 경우 넣는 것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때그때 가치 판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다. 뉴스피드는 뉴스를 스피드 있게 전한다, 뉴스를 전한다 이렇게 중의적인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전달자들이 의욕이 앞서서 무리수가 있었는데 개선해나가고 있다. 서면으로 내주신 데이트 폭력 공익광고는 내일부터는 중단하겠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 :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형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PC 설정 같은 게 상이해 발생한 문제인데 제작사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시정을 했다. 개편하면서 여러 버그가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 지적해주시면 개선해나가고 하겠다. 랭킹별로 나열된 기사가 동일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이것을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올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도국과 제작자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봄 개편 특징은 뉴스 확대 개편이다. 저녁 시간대 <오매 전라도>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딜레이가 되었지만 홈페이지 개편에서 훨씬 더 모바일 친화적으로 했다. <오매 전라도>는 사실은 저희는 월화수목 4일 동안 목포 여수와 같이 하고 싶은데 목포 여수가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월요일만 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최 위원님께서 월요일에 보셨고 조 위원님은 다른 요일에 보니까 다른 지방의 것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 현재는 이렇게 출발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KBC에 비해 전라남도에 3개사가 존재하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통합, 회사 통합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역 3사 간에 교류 협력 상호 이해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의미도 있다. 자주 만나 프로그램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해야 한다. 사실 리얼타임으로 방송을 보는 게 쉽지 않다. 다시 보기도 하시겠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공급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다.
- 윤택림 위원장 : -수고 많았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다. 끝.